

향가 정신과 동인지 『채송화』의 시운동*

- 주제론적 고찰

이형우**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향가 연구 확장
3. 향가정신과 동인지 『채송화』
 - 3.1. 우주적 교감
 - 3.2. 사회적 소통
 - 3.3. 가족적 결속
 - 3.4. 개인적 성찰
4. 나가는 말

[국문 초록]

이 글은 향가 정신을 이을 우리 현대시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향가 정신은 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11194)

** 한양대학교 강사. osonna@naver.com

본의 화가(和歌([waka], 베트남의 국어시(國語詩)와 궤를 같이한다. 모두가 당대의 세계 질서였던 중국에 견주어 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국민의 정서를 자국의 차자법으로 드러내려던 각성이었다. 뿐만아니라 향가 정신은 풍류로 이어져 이 땅을 버리고 살피워 왔다. 이 바탕 위에 우리 문학[예술] 5천년의 역사가 펼쳐졌다. 그러나 지나친 한문 의존과 무비판적인 서구 문화 수용은 우리의 향가 정신을 흐려 놓았다. 그 결과 풍류를 말하면서도 개념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제는 가시적인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 그래서 현대시 속에서 향가의 잔영을 찾아 우리다움을 복원하려 한다. 그 텍스트를 동인지 『채송화』로 하고, 향가와 그들의 짧은 시에 나타나는 주제 의식을 견준다.

주제어 : 향가, 동인지, 채송화, 짧은 시, 디아스포라, 노마디즘, 신라정신

1. 들어가는 말

향가 연구가 100년을 넘었다. 향가의 작품 수에 비해 논문과 저서는 3천을 넘는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추이는 크게 둘이다. 하나는 향가(鄕歌)가 무엇이나에 관한 정의다. 그래서 ‘향(鄕)’의 범위에 대해 분분한 의견들이 나왔다. 그것이 곧 향가의 범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가(歌)’에 방점을 두어 중국의 ‘시경(詩經)’의 편제인 ‘풍(風), 아(雅), 송(頌)’ 등으로 갈래 나누기를 했다.

그 다음은 향가의 어석(語釋) 연구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 한 부분이 많다. “향가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문학적인 분석이 가능하겠는가.”는 질문¹⁾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총 715개의 어절 중, 소창 진평에서 514개 즉,

1) 정병욱, 『증보판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3, 94~95면.

70%가량 확보하였고, 양주동에 이르러 568개 즉, 80%에 달하는 어휘를 확보²⁾하여 어느 정도 진면목에 접근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다.

남은 과제와 전망을 놓고도 “이젠 해독의 결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문학 민속 종교 역사 심리학뿐만 아니라 한의학 천문학 등 통섭적인 연구를 해야 하고, 차자표기를 활용한 동아시아 시가를 비교문학적으로 살펴 향가 연구에 활용³⁾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모하게 인접학문에 의존하는 무사려한 접근법에서 기필코 벗어나야 한다.”⁴⁾는 우려로 양분된다.

이 글은 <향가 정신과 현대시>라는 큰 주제를 다룬다. 그래서 향가의 연원이나 갈래 등은 논외다. 무엇이 향가 정신이고, 시 동인지 『채송화』에 그것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지금까지 향가와 관련된 현대시들이 많이 나왔다. 유형은 크게 “원전 추수적 태도”거나 “원전 이탈적 태도”⁵⁾였다. 향가의 분위기[주제]나 형식[4구체 8구체 10구체]과 관련된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애정어린 관심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는 향가가 지닌 “짧은 시행에 은유와 상징으로 역사와 설화적인 배경까지 담아낼 수 있었던 차원 높은 표현 기법”⁶⁾을 제대로 담아냈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다. 이 글 역시 이런 연장선에서 동인지 『채송화』를 살핀다. 어떤 점이 향가 정신을 이었고, 어떻게 시운동을 펼쳐야 하는지를 같이 모색하려 한다.

2) 박재민, 「향가 해독 100년의 연구사 및 전망 -향찰 체계의 인식과 古語의 발굴 정도를 중심으로」, 『韓國詩歌研究』 第45輯, 2018, 58-73면.

3) 황병익, 「역사와 문학 기반 향가 연구의 회고와 전망」, 『韓國詩歌研究』, 第45輯, 2018, 129-162면.

4) 박노준, 「향가연구, 내일을 위한 제언 -유의할 점 몇 가지」, 『韓國詩歌研究』, 第45輯, 2018, 8면.

5) 이창민, 「향가 현대시화의 맥락과 방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46집, 2010, 100면.

6) 주경림, 「고 향가 계승과 현 향가 재현의 현황과 과제」, 『文學 史학 철학』 제57호, 2019, 163면.

2. 향가와 노마디즘

투후 김일제가 화두에 오른 지 많은 세월이 지났다.⁷⁾ 그러나 몇몇 선비들이 관심에 그쳤다. 최근까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⁸⁾ 이들도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수사라는 견해다. 흉노가 중국에 순화된 것처럼 신라 왕조도 그를 내세운 충성서약이라는 것이다. 나머지는 실제 연관성에 무게를 둔다. 정연식은 ‘천문학, 음운학, 민간설화 등을 원용하여’ 신라 김씨 왕조가 김일제의 후손임을 확신했다.⁹⁾ 이런 연구를 종합한 KBS의 『역사추적』이 방영되면서 그 관심사는 크게 확산되었다. 이미 중국은 흉노 재평가를 통해 그들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료 부족으로 제대로 심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라 김씨 왕조가 투후의 후손인 점과 향가는 무슨 상관인가?

향가를 알기 위해서는 향가를 향유한 계층이 중요하다. 그들의 집단 무의식이 향가 정신이다.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정신을 드러내는 언어다. 체계가 다르고 발음이 다르다. 한 나라의 언어는 소통 가능한 지역어 총체(a collection of mutually intelligible dialects)다. 종족의 정체성은 언어로 실현된다. 세월과 무관하게 언어의 큰 틀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는 고구려어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고구려가 망하고 신라의

지배를 받았지만 “고려어의 어휘에는 고구려 어휘가 상당하고, 음운 체계 역시 고구려어의 그것에서 진화했고, 고려어의 문법 주도도 고구려어의 문법구조와 일치한다”¹⁰⁾는 연구가 이를 잘 알려준다. 三國志 魏書三十 동이전(東夷傳)에 나오는 진한의 언어가 “마한과 다르다(其言語不與馬韓同)”¹¹⁾는 기록은 그만큼 향가에 신라어[신라지배층 언어]의 특수성이 투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사례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향가의 ‘목적격, 처격, 어미, 어휘’ 등에서 몽골어와 친연성이 많¹²⁾다는 연구도 등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삼국유사』에 전하는 향가 모두가 김씨 임금들 시기의 작품이다.¹³⁾ 격변기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왜 신라가 향가를 숭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향가의 창작동인은 아름다움¹⁴⁾이다. 문제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설정하느냐다. 신라 사람들은 “서정에 젖기 위해서, 또는 시가의 아름다운 예술 세계를 즐기기 위해서 짓거나 향유하지 않았다.”¹⁵⁾ 이 상반된 명제를 종합하면 신라인들의 미의식은 국가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일차적으로 김씨 왕족들이 집권을 강화하고 삼국 통일의 청사진, 통일 이후의 국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도구로 봐야한다. 그것이 다양한 언술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확정 편향[confirmation bias]은 시선을 고착시키고 변화를 거부한다. 생각 바꿈이 향가 연구를 새롭게 할 여지가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7) 「문무대왕릉비」가 처음 발견된 것은 1796년[정조 20년] 경주의 밭에서였다. 당시 경주부윤 洪良浩가 이를 탁본하여 세상에 알렸다.

8)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이종호의 「북방 기마민족의 가야.신라로 동천에 관한 연구」(『백산학보』 제70호, 2004)를 들 수 있다. 이종호는 무위시 휴저성을 사례를 들어 흉노가 얼마든지 정착 가능한 집단이라고 평가한다. “투후 休屠王의 후손이 결국 신라로 들어와 지배세력이 되고 신라김씨 왕족의 선조가 된다는 것은 이들에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라김씨 왕조가 신라의 지배층이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고 한다.(이종호, 「匈奴의 休屠王 태자 金日磾(金日)에 관한 研究」, 『백산학보』 제88호, 2010, 176쪽.) 반면 김수미는 이는 나당전쟁이후 중국과의 친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로 본다.(김수미, 「「문무대왕릉비」에 나타나는 북방과 출제 인신의 변화」, 『역사학연구』 제74집, 2019, 73-89면.)

9) 정연식, 「신라의 태조 미추왕과 은하수」, 『한국고대사연구』 62, 2011, 219-246면.

10) 박종덕, 「고려어 형성과정에서 신라어에 의한 고구려어 치환설 재고」, 『동아시아 고대학』 제13집, 2006, 54-73면.)

11) 『三國志』 魏書三十 辰韓傳

12) 최범, 「신라어에서의 외래 요소」, 『한국전통문화』 15, 2019, 28-31면.

13) 가장 오래된 향가(鄉歌)인 「서동요」가 신라 진평왕대(579~631)에, 「혜성가」[진평왕대], 「풍요」[선덕왕대], 「원왕생가」[문무왕대], 「모죽지랑가」[효소왕대], 「현화가」[선덕왕대], 「원가」[효성왕대]가 무열왕, 신문왕 대를 제외하고는 대를 이어 나온다. 더구나 경덕왕 때에는 「도솔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안민가」, 「도천수대비가」가 몰아서 나온다.

14) 김혜진, 「향가 창작 동인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신라인의 미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15, 2008, 266면

15) 박노준, 앞의 글, 8면.

막힌 문제는 발상 전환으로 풀어야 한다. 김씨 왕조가 김일제의 후손이라는 전제는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복한다. 대륙을 누비던 위풍, 한고조를 굴복시킨 기상, 태자에서 노예로 전락한 수모, 재기해서 누렸던 영화, 김씨 성을 하사 받고 봉토를 받은 영광, 안주하다 맞은 봉면[왕망의 난이 몰고 온 운명], 떠돌이 생활하다 토착민의 경계를 풀고 국가 경영 주체로 등극한 여정, 일통(一統)의 위업, 유구한 왕조 경영의 공지와 소망 등이 그들을 지배하는 무의식이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지녀야 하는 개방성, 적응성, 다시 말하면 국제 감각, 외교 전략, 치세술, 추진력 등을 익히지 않을 수 없었다.

웅장한 시야를 지녔기에, 광활한 영토를 지배한 기억이 있기에 변방의 왕국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는 비굴할 수 없는 외교전을 펼쳐 가며 끝까지 당나라와 싸웠다. 그리고 천 년 왕조를 어어갔다. 그들에겐 대륙을 누비던 유목민들의 DNA가 있었고, 국제 질서를 활용하는 지혜가 있었고, 백성을 교화하는 진정이 있었다. 이질 생태계에 착근하고 이를 지배하는 강인함이 있었다. 어차피 떠돌고 섞이며 공동체 정서를 확립한 시간이 역사다. 어떻게 해석하든, 투후의 후예라는 신라 김씨 왕족들의 말 속에는 대륙성, 유목성이 그들의 집단 무의식임을 알려주고 있다.

3. 향가 정신과 동인지 『채송화』

최치원이 말한 풍류는 중국적 맥락으로 읽으면 더 간명해진다. ‘풍(風)’은 시경(詩經)의 풍(風) 장르다. 풍(風)은 노래[민요]다. 당대 우주의 중심이었던 중국의 풍 갈래가 신라에도 있었음을 강조한 차원으로 읽어야 한다. 최치원이 말한 풍류(風流)는 신라의 국풍(國風)이다. 다시 말하면 ‘신라 노래 가락[흐름/갈래]이다.’ 동아시아 몇몇 나라에선 한자의 차자를 통

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다. 우리는 향찰(鄉札)이라 했고 일본은 가명(假名)[kana]이라 했고, 베트남은 자남(字喃)[chanom]이라 했다. 향찰로 쓴 시를 향가(鄉歌), 가명으로 쓴 시를 화가(和歌)[waka], 자남으로 쓴 시를 국어시(國語詩)/국음시(國音詩)[quocnguthi]라 했다. ‘향(鄉), 화(和), 국(國)’은 모두 “중국을 뜻하는 한(漢)과 맞서서 자국을 지칭한다.”¹⁶⁾ 또 이런 시들은 “한시에 대응하는 개인 창작의 민족어 서정시”를 마련한 공동 과제를 담당했다.¹⁷⁾

①우리 시가 갈수록 수다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집중과 함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다스러움 속에서 시의 위위는 물론 생기마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②시는 본래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줄이고 줄인 몇 마디 말로 써 깊은 의미와 감동을 전할 따름입니다. 이를테면, 장마의 전 과정이 시일 수는 없습니다. 시는, 주야장천 내리는 빗줄기이기보다는 그 긴긴 날 중 어느 한순간 우지끈 천지를 들었다 놓는 천둥이며 번개 같은 것입니다.¹⁸⁾

동인지 『채송화』는 2008년 3월에 창간호를 냈다. 우선 이들 동인은 대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에서 모였다. ①은 동인지 『채송화』의 시형식에 관한 지침이다. 시가 길어지고 (시의)위위가 떨어지고 (시의)생기가 시드는 이 시대에 자신들은 짧은 시를 쓰겠다는 결의다. ②는 형식과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자신들의 시는 “줄이고 줄인 몇 마디 말”로 된 시형식이고, “어느 한순간 우지끈 천지를 들었다 놓는 천둥이며 번개 같은” 울림[내용]으로 깨우침과 감동을 주겠다는 의지다. 그러면서 “굳이 앓은뱅이”, “비록 한해살이풀이지만, 스스로 씨앗을 맺고 뿌리내려 제 뭇만큼의 빛깔과 향

16)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1), 105 ~ 107면.

17) 최귀목, 『동아시아 문학사에서의 향가의 위상』, 『국어교육』, 2002, 519면.

18) 작은시앗 채송화, 『내 안에 움튼 연둛빛』, 고요아침, 2008, 6면.

기를 때맞춰 어김없이 피워내는”, “오체투지 그 낮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시의 꽃 『채송화』를 피우겠다고 했다. 간략히 말하면 “집중”과 “함축”으로 빛은 짧은 시를 쓰겠다는 선언이다. 첫 회장을 맡았던 윤희가 썼다.

정일근 시인은 내 시가 가짜라 한다
그냥 짧은 시라는 말이겠다
가슴에 대못 하나 박히니 알겠다
공연히 행 줄이는 데 골몰했던 것
열 줄이나 한 줄 또한 형식
행간 너머 두근두근 심장을
저 무한량 우주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

-함순례, 「가짜시」(9호)

「가짜시」에는 『채송화』 동인들이 무엇을 고민했는가가 드러난다. “그냥 짧은 시” 즉 모양새만 짧은 시는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시가 아니다. 긴 시는 당연히 아니고, “공연히 행 줄이는” 시도 마찬가지다. “두근두근 심장을”, “무량한 우주의 문을” 열어야만 진짜시가 된다. 그랬을 때 동인지 『채송화』는 두 과제를 떠안는다. 하나는 어떻게 제대로 짧게 쓰느냐의 문제고 나머지는 어떻게 깊이를 더하느냐다.

3.1. 우주적 교감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된 향가 중에서 우주적 담론을 담은 작품

은 「도솔가(兜率歌)」와 「혜성가(彗星歌)」다. 둘 다 하늘의 일로 땅의 역사를 해결한다. 두 개였던 해가 「도솔가(兜率歌)」를 부르니 정상으로 돌아왔고, 혜성의 변괴도 「혜성가」를 부르니 모든 게 해결됐다. 그만큼 하늘과 땅은 서로 닿아 있다. 인간[땅]의 일이 하늘의 계시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인지 『채송화』의 우주론은 「도솔가(兜率歌)」와 「혜성가(彗星歌)」나 타나는 사람 중심의 삼재(三才)와는 다르다. 하늘[우주]를 대사회적 메시지 전달에 활용한 것과는 달리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깊이를 더한다.

어둠 이쪽으로
빛나는 쇠뿔 하나 불쑥 비쳐 있다
저 뿔 따라 어둠 저편 헤치고 가면
잃었던 소 찾겠다

- 복효근, 「초승달」(2호)

새라도 날았더라면
거문고 소리 요란했겠다

- 복효근, 「달빛」(7호)

아내가 또각또각 자르는 연뿌리에서 수십 개의 수레바퀴를 본다 진흙연못 속에는 팔만사천의 수레바퀴가 구르고 있겠다 꽃잎 경전을 실어 나르는

- 복효근, 「수레바퀴를 보다」(8호)

화자는 분명 초승달을 바라보며 우주의 앙시도(仰視圖)를 그린다. 그렇지만 『莊子』의 대붕(大鵬)이 수만리 장공을 날아 올라 지구를 바라보는 듯한 기분에 들게 한다. 우주를 퍼즐 맞추기 놀이로 바꾸어 즐기고 있다. “잃었던 소를 찾겠다”는 진술은 불교의 십우도(十牛圖)를 연상시킨

다. 마찬가지로, 「달빛」에서는 허정의 세계를 노래한다. 새의 날갯짓도 거문고 소리로 들릴 만큼 극도로 고요한 밤 풍경을 그려낸다. 그런가 하면 「수레바퀴를 보다」에서는 아내가 잘라내는 연근에서 “수십 개의 수레바퀴를 본다” 이를 통해 “꽃잎 경전을 실어 나르는” “팔만사천의 수레바퀴”를 떠 올린다. 복효근은 우주의 섭리를 발견과 시간으로 밀도있게 드러낸다. 그에게 봄은 “원수처럼 지내던 고양이 두 마리/양지 쪽에서 서로의 살을 핏아주고 있”(복효근, 「봄」, 10호)는 시공이고, 그 “고양이 발자국”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는 동안/얼른 알고/송이눈이 덮어”(복효근, 「꽃의 시간」, 10호) 준다. 또 그에게 가을은 “연인처럼 왔다가/도둑처럼 가버리는//도둑처럼 왔다가/연인처럼 가버리는//시월”(복효근, 「연인과 도둑의 시간」, 11호)이다.

아, 저 퍼렇게 지친 하늘, 어깨를

실은, 요 작은 나뭇잎들이 조물조물 주무르고 있었던 거였구나

- 오인태, 「숲에 누워서 보니」(5호)

눈 온다

할 말이 참 많으신가 보다

눈 온다

참, 할 말이 없으신가 보다

- 오인태, 「난세의 눈」(4호)

할무이에

퍼뜩 나와보이소에

개불알풀 꽃이 천지뻘까리라에

큰개, 아니 강새이처럼 달랑거리면서에

성큼, 아니 까치발로 종종거리면서에

요렇게 봄은 또 왔능개빈데에

- 오인태, 「개불알풀 꽃은 피었는데에」(12호)

「숲에 누워서 보니」의 ‘작은 나뭇잎들’은 『슬픈열대』의 토인들을 떠올린다. 아버지[해]가 떠나던 길을 가시다 지쳐 쓰러지면[떨어지면] 어찌나 싫어 토인들이 춤을 추듯이, 작은 나뭇잎들은 지친 하늘을 안마하고 있다. “할 말이 참 많”아서 “참, 할 말이 없”으셔서 하늘은 눈을 내린다. 많고 없음의 대비, 부사 “참”의 재배열로 생각하고 보는 즐거움을 준다. 복효근과 마찬가지로 오인태도 우주의 흐름을 발견과 시간으로 나타낸다. 거기에서 「개불알풀 꽃은 피었는데에」처럼 토속어를 잘 살려 절창을 만들어 낸다. 시간의 발견은 나혜경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살금살금 나를 지나가는데

짓을까 말까 분별하는 동안

시간이란 놈은 쏜살같이 가버렸다

- 나혜경, 「한낮」 6-9행 (17호)

복효근, 오인태, 나혜경이 가벼움과 즐거움으로 우주를 관망한다면 나기철은 무거움과 경건함으로 맞이한다.

세수를 했는데

잊고

또 세수물을 받았다

물을 내리며

두 손을 깎지 깬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 나기철, 「맑은 물」(2호)

화자는 물 한 바가지 낭비에도 죄스러워 한다. 물을 물쓰듯이 하는 물 지각한 행위에 제동을 건다. 이는 또 산천을 유람하며 수련에 임했던 화랑들의 마음가짐과도 일치한다. “두 손을 깎지” 끼고 비는 용서는 인간 중심의 근세적 사유에 대한 반성이고, 우리의 천지관 회복에 대한 염원이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 상호교섭 없이는 같이 살 수 없다. 인간다움은 바로 우주 질서에 대한 경외감을 지니는 데서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추석」에서는 서로의 “눈망울에/달/흰히” 뜨는, 눈부처 가득한 세상을 염원한다.

윤효는 「나무」(10호)를 통해 “가두리양식장”인 나무가 모조리 가두고 있다가 “일 년에 한 번 수문을”여는 시간을 비춘다. “눈비와 땡별과 바람에 맞서 키워온 씨알들을/너른 품으로 떠나보내기 위해/가을에 딱 한번” 내보내는 자연의 질서를 노래한다. 또 흑한으로 “한가운데 남겨놓은/제 숨구멍을/마저/달”고서 “송사리 떼” 살게하는 웅덩이[뚝방]을 부각한다.[「따뜻한 얼음」(12)호] 그런가 하면 정일근은 이상기후[기후 온난화]로 생겨나는 위험신호를 화두로 보낸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집)의 “겨울은 추워야 맞인데!”라는 말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속성인 불인(不仁)이 사라진 세상의 비상식의 상식화를 이야기한다. 대우주의 질서는 삶과 죽음, 더위와 추위가 오가는 일이다. 인간의 문명은 이 질서를 깨뜨렸다. 그 결과로 올 대참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도솔가(兜率歌)」와 「혜성가(彗星歌)」 증상과 닿아 있다.

3.2. 사회적 소통

『삼국유사』에서 사회적 소통을 노래한 시로는 「서동요(薯童謠)」, 「원가(怨歌)」, 「안민가(安民歌)」, 「우적가(遇賊歌)」, 「풍요(風謠)」 「해가(海歌)」¹⁹⁾ 등이 있다. 여론을 조성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교화하는 기능을 한다. 『채송화』 동인지에도 역사 인식, 현실비판, 세속 진단 등의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우리나라 꽃들은 대부분

3·1절과 4·19혁명기념일 사이에 피어난다.

꽃샘 잎샘 까탈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 사이에 꼭 피어난다.

- 윤효, 「우리나라 꽃들은」(1호)

조그맣고 가냘픈 풀일수록 그 잎새는 꼭 칼날을 닮아 있습니다.

땅 위에 발 디디고 사는 게 문득 부끄럽습니다.

- 윤효, 「봄날」(1호)

윤효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장 활발하게 펼친다. “꽃샘 잎샘 까탈”은 독재의 폭력을 상징한다. 꽃이 사시사철 피어남에도 「우리나라 꽃들은」에서는 3·1절과 4·19혁명기념일 사이에 대부분 피어난다고 강변한다. 그 주체는 「봄날」의 “조그맣고 가냘픈 풀”들이다. 칼날의 형상을 한 이유는 힘없음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가녀린 칼날들이 대의명분으로 모이면 정의(正義)가 된다. 「봄날」의 화자는 스스로가 “조그맣고 가냘픈 풀”임에도 칼날을 지니지 못했고, 그렇기에 스스로 지키기도 버거웠고, 세상 변

19) 해가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다. 여기서는 설화와 관련지어 민원(民願) 시가로 보고 이 항목에 포함한다.

마을 어귀 시멘트 포장길에
개 발자국 몇 개 깊숙이 찍혀 있다

개는 덜 마른 시멘트 반죽 위를
무심코 지나갔겠으나 오래토록

“개새끼”,
귀가 가려웠겠다

선승이나 개나 발자국 함부로 남길 일 아니다

- 복효근, 「족적」(15호)

같은 ‘개새끼’를 호명하는 데도 방식이 다르다. 정일근은 직타를 날리고 복효근은 은근하다. 「태안반도에서 들었다」는 2행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문명 비판의 여운을 극대화 한다. 대상과 화자의 차단된 거리만큼 분노도 커진다. 그것이 「포경반대」(6호)로도 이어진다. 복효근 화자들은 피아(彼我) 구별이 무의미하다. “차 속도를 줄이더니/가만히 서 있는 나를 위아래로 한참이나 훑어보고”(「개장수가 다녀가다」, 1호) 가는 개장수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확인한다.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일로 확산한다. “선승이나 개”만 “덜 마른 시멘트 반죽 위를/무심코” 지나가지 않는다. 아무데나 “발자국 함부로 남”기려 하는 속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누구든 “개새끼”하고 부를 수도, 불릴 수도 있다.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오래토록’ 상흔이나 오점으로 남는다. 「족적」이 신중한 행위를 주문한다면 「말」(5호)은 언어의 폐해[오염]를 각인시킨다.

세어 봄, 앉아 봄,

알아 봄, 설명해 봄, 표현해 봄, 골라 봄, 시범해 봄

평가를 읽어보니

학생들은 사제절 ‘봄봄’을 실천하였구나

- 나혜경, 「연중 ‘봄」」(12호)

나혜경은 ‘보다’의 명사형을 계절과 연관시킨다. ‘봄’이라는 보조용언의 총체가 ‘봄봄’이 된다. 여기서 ‘봄’은 학생과 선생의 ‘삶’ 그 자체다. 어휘 중첩이 의미 중첩을 낳고, 그것이 다른 세계로 상상력을 펼쳐 준다. 그는 익숙한 어법을 “처음 보는 세상”(「생각보다 가까운 뒤쪽」, 12호)으로 만들려 한다. 김길녀도 “때로는 그들이 빛보다/찬란할 때도 있다”(「그림자 사랑법」, 7호)는 숙성된 사유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3.3. 가족적 결속

당여(黨與)적 상상력은 가문이나 사조직과 관련되어 있다. 향가의 「헌화가(獻花歌)」, 「처용가」,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천수대비가(千手大悲歌)」 등이 주제면에서 여기에 속한다. 『채송화』 동인지에서도 가장 많은 시편들이 이런 발상법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모곡(思母曲)이 주를 이룬다.

79세 내 엄마 그리고

49세 나와 19세 내 딸

밤 독길에서 손잡은 채

별을 헤아린다

딸아이 웃음소리

은하수 건너가며
삼십 년 바람의 행간 속에서
별을 낳는다

- 김길녀, 「지극한 사이」(9호)

새 학년이 된 아들 자랑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환경지킴이가 되었어. 가위바위보로 반애들 완전 제껴버렸지.” “……” “교실 밖 청소하는 거래. 이제부터 뭐든지 열심히 하기로 맘먹었는데 우선 청소부터 잘해 보려고 해. 봉사시간도 쳐준다 하고 일석이조지 뭐야!”

엄마는 이마를 치며 꺄꺄 웃었습니다

- 함순례, 「모전자전」(4호)

「지극한 사이」는 79세, 49세, 19세의 삼대, 아홉수를 외할머니, 화자[어머니], 딸의 “밤 독길” 산보를 행복한 기억을 되살린다. 그들에게는 30년 차이가 있다. 그 행간 사이로 별이 반짝이고, 별을 헤고, 웃음 소리 흐른다. 또 「모전자전」에서는 DNA를 속일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낸다. 아들은 교실 밖청소를 담당하는 환경지킴이가 되었다. 그것도 “가위바위보로 반애들 완전히 제껴”버리고서. 전리품으로는 너무나 허망하지만 이 역시 에미의 옛날이었다. 그러니 “이마를 치며 꺄꺄” 웃을 수밖에 없다. “주인이 찾아와 새끼를 오토바이에 싣고 집으로 향하면 어미낙타는 새끼를 따라 달린다지요. 시속 칠십킬로미터 전속력으로 달린다지요 그렇게 빠를 수가 없”(함순례, 「에미 -고비4」, 16호)다는 어미의 모습과 그 헛헛한 웃

음이 더 대비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조상들 덕분이고 때문이다.

저 하염없이
붙어대는
매미의 독주

내 방 FM
교향악이
반주해 주는

어머니
가신 지
한 달

- 나기철, 「팔월」(7호)

또
밤새
뒤척이신 듯,

밤은 아직 으슬으슬 찬데,

그러지 마시라
빌었건만,

언 손으로 써내리신

연듯빛 친전親展.

—어머니, 저흰 잘 지내고 있어요.

- 윤희, 「감잎 편지」(18호)

어머니를 땅에 묻고 천 일 동안 시 천 편을 썼다
어머니의 몸이 가시만 남은 생선처럼 해체될 무렵

내 몸에도 시 한 점, 한 방울 남지 않았다

이후, 천 편의 시를 하루에 한 편씩 사르며
천 일 동안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았다

내가 유일하게 시인인 때였다

- 오인태, 「살모사詩」(7호)

떨어진 감,
새가 쪼아 먹은 한 귀퉁이 발라내고
입에 넣은 순간

어머니
가을별 속으로 튕겨 올랐다

- 함순례, 「어미새」(3호)

모두가 사모곡(思母曲)이다. 「팔월」에서는 방 안의 FM 교향악 반주에

따라 매미가 운다. 살아 있음은 소리를 듣는 일이다. 안팎으로 소리가 진동하는데 꼭 들어야 할 목소리는 한 달 전에 이미 끊겼다. 저승은 소리가 차단된 곳이다. 그러나 「감잎 편지」에서는 이어져 있다. 살아계실 때처럼 어머니는 자식의 말을 듣지 않는다. “언 손으로 써내리신/연듯빛 친전親展”을 보내신다. 「살모사詩」에서 화자는 “어머니를 땅에 묻고 천 일 동안 시 천 편을”쓰고, “이후, 천 편의 시를 하루에 한 편씩 사르며/천 일 동안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않”는다. 「어미새」에서는 떨어진 감을 “새가 쪼아 먹은 한 귀퉁이 발라내고/입에 넣은 순간” 어머니가 떠 오른다. 온전한 것 자식들 먹이고 그렇게 살다 가셨다. 단출한 시행 몇에 무한 그리움을 담아낸 작품들이다.

가족에 관한 기억은 윤희와 함순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윤희는 “저녁 상에/숟가락 놓는 소리에도//가슴이/철렁”한다. 혹시나 싶어 “서성거려도/두리번거려도” 낯선 어둠만 가득하다. “아아,//어머니”(「낯선 어둠」, 7호) 하고 속으로 통곡한다. 아버지는 “겨울 밤, 이불을 차낼 때마다 용케 아시고 시린 어깨를 덮어주시던 손길”(「아버지 —우즈벡 詩抄 5, 19호)로 남았다. 증조모의 모습은 “해가 저도/안방 마루 끝은 언제나 환했”던 “늦 요강”(「평전評傳」, 10호)처럼 환하고 단아하다.

함순례는 “장보다리 마주잡고/사이 좋게 걸어가는 노부부”와 “무거운 짐 들고 뒤에 처진/엄마 아랑곳없이/성큼 앞서만 가시던 젊은 아버지”(「판화」, 13호)를 대비시킨다. 또 “남의 집이 된 옛집 앞에서 사라진 돌담을 더듬게 되는/텃밭 우듬지, 그 모든 남의 것 바라보는 아버지”(「시월, 고향」, 3호)의 모습과 아버지의 봉분을 바라보는 화자를 등장시킨다. 제대로 된 짧은 시는 상상력의 공간을 상대적으로 넓혀준다.

늘 배가 고프다고

입술이 열려 있는 것과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입술을 닦아 버리는 것

추운 날 닫혀 있는 문을 여는 것은
그래서 늘 어렵다

- 이지엽, 「나와 남의 차이」(5호)

낮선 바다

낮선 외로움

낮선 고요

낮선 방

낮선 나라

낮설지 않은 당신

- 김길녀, 「꿈꾸는 감옥」(10호)

「나와 남의 차이」, 「꿈꾸는 감옥」, 「너도」는 관계맺는 방식에 관한 담론이다. ‘나’와 ‘남’의 차이는 양순음 계열의 유성음 받침 ㅁ뿐이다. 이런 자모음 놀이로 기호학적 사유를 극대화 한다. 모음 ‘아’는 가장 입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개(開)모음이라 한다. 소리가 낮아 저모음이라 한다. 나는 달라고 늘 연다. 남은 줄 게 없다고 닫는다. “닫혀 있는 문을 여는 것”

도 어렵다. 여기에 “추운날”은 오죽하랴. 무거운 말을 가볍게 하는 이지엽의 글쓰기 방식이 잘 나타난다. 「꿈꾸는 감옥」의 화자는 낮설을 꿈꾸는 전제로 생각한다. 바다가 낮설어 자꾸 오고, 고요가 낮설어 자주 잠기고, 방이 낮설어 들락거리고, 나라가 낮설어 찾아 간다. 그러나 당신은 낮설지가 않다. 낮설지 않은 당신은 화자에게 꿈 꿀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런 당신과 있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우리의 일상, 친숙함은 곧 꿈꾸는 감옥이다. 복호근의 「너도」(4호)에서는 「꿈꾸는 감옥」의 실체가 드러난다. 너는 섬이고 나도 절해고도다. 우리는 딱 한 사람분의 영토에 거주하는 절대자고 피조물이고 주체이자 객체이고 주체이며 타자다.

왼쪽에 뛰던 심장이 오른쪽에서도 뛰네
세상 그득히 내가 참 많기도 하네

- 복호근, 「포옹」(2호)

그,
등을 서로 어루만져 주는 일

- 오인태, 「포옹」(4호)

포옹은 화합이고 조화다. 복호근 「포옹」의 화자는 일차적으로 ‘나 되기’다. 오인태 「포옹」의 화자는 ‘우리 되기’다. 그래서 전자는 심장 박동을 확인한다. 내 가슴에 뛰는 두 개의 심장, 내가 껴안는 모든 사람은 나이니 “세상 그득히 내가 참 많기도” 하다고 기뻐한다. 후자는 상호 위안이다. 껴안기의 본연은 지친 심신을 달래주고 가려움을 긁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전자는 앞[가슴]이 중요하고 후자는 뒤[등]가 중요하다. 포옹은 “내 아픔이 치유되자” 보였던 “그의 아픔”(김길녀, 「반성」, 10호)을 보듬고픈 배려일 수도, “좀, 달짝지근하고/좀, 뽕고/좀, 시큼하던//첫 키스/그.”(오인태,

「멍게」, 13호) 일을 떠 올리게 하는 신선한 쾌감일 수도 있다. 세상의 모든 미덕은 포옹을 통해 온다.

초저녁 초승달 하도 이뻐서 나가서 보고 왔다가
저녁 먹고 또 나가서 보고 왔다
잠시 후
또 달 보러 나간다고 했다가 혼났다

아직도 내가 그 여자 생각하는 줄 아는 모양이다
- 복효근, 「초승달」 (18호)

아내가 집에 있다

아파트 문
열기 전
걸음이 빨라진다

어렸을 때
엄마가 있는 집에
올 때처럼
- 나기철, 「엄마」 (9호)

곁곁이 쌓은 붉은 문장

열흘은 너무 길다
딱,

사흘만
내 남자로
머물다 가시라

- 김길녀, 「만첩홍도萬疊紅桃」(13호)

남편 발이 내 쪽으로 뻗어와 잠 깬 새벽
먼 길 걸어온 발, 뒤꿈치를 만져본다
굴곡도 파란도 길이 되어
저물도록 옆에 놓일 발자국
오래오래 쓰다듬는데
누군가 내 발을 어루만지고 있다

- 나혜경, 「발뒤꿈치가 안쓰럽다」 (9호)

「초승달」과 「엄마」에서는 두 남성 화자의 상반된 모습이 나타난다. 「초승달」의 화자는 과거사로 인해 운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쁜 초승달조차 맘대로 보지 못한다. “차 안에 두면 향기가 좋겠다는/아내의 말을 듣고/앞집 탱자울타리에/신발 한 짝을 벗어 던”(복효근, 「공범」, 6호)저 탱자를 판다[흠친다] 「엄마」의 화자는 “엄마가 있는 집에/올 때처럼” 아내를 향해 행복하게 간다. 「메롱」의 화자 역시 아내 시키는 대로, 몇 군데를 둘러서 ‘메로나’(나기철, 「메롱」, 14호) 아시스크림을 사 간다. 애처가들의 일기 같다. 하지만 그런 진술들은 애정과 복종, 순박과 음흉의 경계를 의심하게 해서 시적 쾌감을 드높인다.

「발뒤꿈치가 안쓰럽다」에서는 “먼 길 걸어온 발, 뒤꿈치를”, “굴곡도 파란”에서도 길을 낸 그 발뒤꿈치를 어루만진다. 의심할 데 없는 부부애를 보여준다. 하지만 「만첩홍도萬疊紅桃」의 화자는 “딱/사흘만” 내 남자라 머물다 가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지만 제

대로 된 사랑을 나누기엔 열흘도 길다고 한다. 사흘은 「꿈꾸는 감옥」에서 낮선 시간 낮선 방 낮선 당신을 만나고 보내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시간이다.

어쩌면 우리 인연은 바위 위에 떨어진 홍시 같아서 “서로를 껴안고 한 백년 단잠에”[함순례, 「홍연紅緣」(14호)] 드는 착각인지도 모른다. “지난주에 전화를 했는데 결번으로 나오는 친구의 전화번호”(정일근, 「서울·20」, 4호)처럼. 그래서 “詩는 가까울수록 좋고/詩人은 멀수록 좋다는 것을”(정일근, 「후회」, 5호) 안다. 이런 애노희락(哀怒喜樂)의 기승전결을 극복하고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진정성 어린 「흰 나무」가 되어 간다.

새치를 발견한 아이가 뽑겠다고 달려든다
 놔둬라, 키우는 데 오십 년 걸렸다

- 나혜경, 「흰 나무」(10호)

3.4. 개인적 성찰

개인의 소망을 비는 향가는 「원왕생가(願往生歌)」, 「제망매가(祭亡妹歌)」 등이 있다. 향가 화자들의 의지와 다짐이 『채송화』 동인들에게는 ‘세계-내-존재’로 각인된다. 그것은 몸과 생태계에 대한 재인식, 대상과 세상, 우주와의 소통 염원으로 나타난다.

밥통
 술통
 똥통
 편두통

고집불통
 꼴통

그 온통

- 복효근, 「몸통」(10호)

좋아한다아니다좋아한다아니다
 네가 나를 들락거리는 동안
 허물었다지었다허물었다지었다
 내가 너를 들락거리는 동안
 마음속 집 한 채 부풀어 말랑말랑 화끈화끈
 새 신발 신던 발뒤꿈치나 화상 입은 살보다
 더 얇아지고 얇아져, 언젠가는
 저절로 허물어질, 위험한 집

- 나혜경, 「물집」(6호)

얼굴 익혔다고
 낮엔 꼬리 흔들며 다가오더니
 발아래 기대어 순하게 누워 있더니
 이른 새벽 주인집 대문을 열자
 쏜살같이 달려와 짚는다
 물어뜯을 듯 짚는다

- 함순례, 「본성」(11호)

우리의 몸이란 온갖 긍정과 부정이 망라된 “그 온통”이다. 또 긍정하고 부정하고 허물고 지우고 들어가고 나가다가 “언젠가는/저절로 허물어질,

위험한 집”에 산다. 거기서 “낮엔 꼬리 흔들며 다가오더니” 주인집 대문 여는 소리에 돌변하여 “손쌀같이 달려”와서 “물어뜯을 듯 깃”어대는 개다. “하늘과 땅 사이/나무와 나무 사이/숲과 숲 사이/너와 나 사이”(오인태, 「새의 어원」, 17호)에 있다. 그 사이가 ‘새[축약]를 새는 비상하고 비상은 꿈을 주고, 소통을 이룬다. 사이는 제대로 된 소리를 만든다. “우듬지에 머물던 바람이 몸통으로 발치로 내려와 놀”게 한다. 사이와 새와 바람, 그것이 곧 풍류의 발원이다. 풍류는 바로 틈새에서 이는 바람의 맛과 멋이다. “맘껏 휘청이”게 하고 “온몸으로 울”(함순례, 「틈」, 18호)게 하는 원동력이다.

멀사봉공, 그 극치

빛난다 향기롭다

참, 크다

- 오인태, 「멀치」 (3호)

“작아 늘 부끄러웠던 멀치의 치恥가/스스로 멸滅한 뒤에 만들어지는”, “다 비워 버렸기에” 다다르는 「멸장」(정일근)의 깊은 바다 맛은, 「멀치」의 “멀사봉공. 그 극치”로 요약된다. 그는 작지만 빛나고 향기롭고 크게 살았다. 이런 시선은 윤희의 「소금」(9호)에도 나타난다. “물에 갇힌 바닷물이” 오랜 시간을 고심한 끝에 “끝내는/기어코/바다로 돌아갔음을 알리는”, “은빛 사리”가 사방에 남았다. 그런가 하면 정일근의 「밤꽃」(3호)에 오면 “무쇠라도 녹일 것 같은 아랫도리 풀고/온 산 바람난 년처럼 휘젓고 다니더니/가을에 우루루 풀어놓는 자식들/불알의 주인도 모른 채 터져버리는/줄줄이 알알이 달콤한 호로자식들”로 형상화 된다. 긴장과 이완의

어법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음을 본다.

큰딸 집에 간 할머니
 지난겨울 죽은지도 모르고
 마당엔 동백꽃이 한창

-복효근, 「빈집」(17호)

철거 앞둔 골목길 마당 너른 기와집
 한 번도 온전히 내 것일 수 없었던
 마루의 적요를 차지한 늙은 감나무
 이파리 무성한 가지 뻗어
 햇살과 그늘에 기대어 놓고 있다

-김길녀, 「오후」(18호)

텅 빈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수컷 딱새 한 마리 날아와서
 심심 심심 심심
 내가 심심하니 비로소 알아듣는다

- 나혜경, 「알아듣다」(13호)

위의 세 시들은 모두 빈집이라는 실재 공간을 소재로 한다. 하지만 「빈집」과 「오후」는 폐가로 변해가는 빈집에, 「알아듣다」 왕래가 없는 외딴 집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한창 핀 동백꽃, 철거 앞 둔 마당 너른 기와집에 무성한 감잎과 그를 비추는 햇살은 우리가 잊고 있는 현실을 부각시킨다. 「알아듣다」에서도 “수컷 딱새 한

마리”와 심심상인(心心相印)하는 모습이 낯설다. 도시의 삶에 익숙한 우리가 서 있는 좌표가 어디인지를 새삼 되묻게 한다. 우리 고민은 매일 “우리 네 식구 방바닥을 모두 덮고도 남”을 신문 기사의 중압감에서 어떻게 벗어나 “그 가늠할 수 없는 파고 위로 날아”(윤효, 「생생」, 3호) 오를 수 있느냐다. 그래서 “내가 올해도 꽃 피웠으니/자네 부부도 한번 다녀가라는” “와서 내 꽃밥 배부르게 자시고 가라는”(정일근, 「꽃 피는 이유」, 10호) 말씀이 아득하게 들리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본연이 그런 그늘 아래였음 잊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았음은, 그 삶을 유지하는 일은 송고하다. 그래서 “노벨상도 밥상 아래에 있다”(복효근, 「상에 대하여」, 18호)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향가를 주제별로 나누어 『채송화』 동인지를 살폈다. 『삼대목』이 발견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 다양한 시향(詩香)이 은은하다. 얼마 안 되는 향가의 빈자리를 『채송화』 동인지가 채우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 그들의 시가 모두 ‘집중과 함축’으로 구성된 짧은 시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그들이 표방한 ‘짧은 시’의 개념부터가 모호하다. 덜 성숙한 표현들이 눈에 띄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개성을 나름대로 잘 드러내고 있다. ‘어느 한순간 우지끈 천지를 들었다 놓는 천둥이며 번개 같은’ 시를 쓰지는 못 했다 해도 이 정도면 만 10년 넘는 세월이 알뜰하게 영글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채송화』 동인들의 일상적인 작품활동에 있다. 그들 대부분은 동인지 안에서만 짧은시를 발표한다. 개인 시집은 일반 시집과 다르지 않다. 선언에 대한 책임은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저야 한

다. 또, 향가(鄉歌) 정신과 『채송화』 동인 정신을 연관짓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향가의 지향성이 시대적 요청이었다면 채송화도 마찬가지다. 『채송화』 동인들이 서구적 지향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시대정신은 제대로는 읽었다. 그러나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듯하다. 지금까지 향가와 현대시를 연결지으려는 시도가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 시인들이 “향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자신의 창작에 반영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향가에 닿을 법한 형식적, 내용적 면모를 보이는 작품들”²⁰⁾에 의존해야 했다. 『채송화』 동인들이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향가 정신은 풍류 정신이고 그것이 모여 신라 정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신라의 풍류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향가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없는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노래로 불러 졌던 격식은 다른 분야로 넘기고, 향가의 형태를 원용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어석 문제는 따로 두고, 유형적 글쓰기부터 체계화 하고 다양화 해야 한다. 이미 도출된 향가 형식만으로도 얼마든 우리식 시쓰기, 새로운 시쓰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은 향가 정신을 투사해야 한다. 그것을 유목민의 Nomadism으로 잇자는 게 이 글의 취지였다. 정착은 망조(亡兆)다. 답습은 망혼(亡魂)이다. 떠다니는 시혼(詩魂)이 명시를 낳는다. 이제는 서구의 근대가 심어준 문학관에서 벗어날 때다. 끝없는 자기 부정으로 새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시를 찾아 나서야 한다. 그것이 향가 정신이고 풍류 정신이다. 동인지 『채송화』의 시운동이 그 모범이었음 좋겠다.

20) 신재홍, 「향가와 김영랑 시의 비교 고찰」, 『韓國詩歌研究』第45輯, 2018, 245쪽.

[ABSTRACT]

The spirit of Hyang-ga and a poetic movement of Chaesonghwa,
a literary coterie magazine

- Speculation on a Thematic Approach

Lee, Hyeong-Woo(Hanyang University)

We speculate where *Hyangga* and modern poems of Korea connect. The spirit of *Hyangga* has the same way with the ones of Waka of Japan and Vietnamese Poems of Vietnam. They are awakenings to make clear their identities borrowing the alphabets to unveil their own natives' emotions, compared to China, the center of the global rule then. Not only that, the *Hyangga* spirit had been rich in forging its blade of the land sustaining with *Poonryu*, the refined taste, on which the five-thousand-year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nd arts have been based. However, the *Hyangga* spirit had been blotted out because of too much dependence on the Chinese characters and no critical adoption of Western culture. We could not understand how to systemize *Hyangga*, even though we knew how precious *Hyangga* was. It seems that although we talk about *Poonryu*, we do not make a clear conception of it. That is why we try how we can make use of *Hyangga* for modern poetry through the present *Hyangga*. We look into how the spirit of *Hyangga* and the movement of writing short poems resemble with the texts from *Chaesongwha*, Rose Moss, a literary coterie magazine. By doing so, we could revive the *Hyangga* spirit and make it clear that it originated from *Poonryu*.

Key word : Hang-ga, literary coterie magazine, Chaehwahwa, short poem, diaspora, nomadism, Silla spirit

[참고문헌]

□ 기본자료

- 작은詩앗채송화, 『내 안에 움튼 연둣빛』 창간호, 고요아침, 2008.
 작은詩앗채송화, 『하늘이 바다를 만날 때』 제2호, 고요아침, 2008.
 작은詩앗채송화, 『하늘 우물』 제3호, 고요아침, 2008.
 작은詩앗채송화, 『모란 구름』 제4호, 고요아침, 2009.
 작은詩앗채송화, 『중심의 색깔』 제5호, 고요아침, 2009.
 작은詩앗채송화, 『탱자냄새가 났다』 제6호, 고요아침, 2010.
 작은詩앗채송화, 『칠혹 고요』 제7호, 고요아침, 2010.
 작은詩앗채송화, 『옛날 애인이 찾아왔다』 제8호, 고요아침, 2011.
 작은詩앗채송화, 『울음의 본적』 제9호, 고요아침, 2012.
 작은詩앗채송화, 『시인의 견적』 제10호, 고요아침, 2013.
 작은詩앗채송화, 『낮은 것들의 힘』 제11호, 고요아침, 2014.
 작은詩앗채송화, 『먼 산』 제12호, 고요아침, 2014.
 작은詩앗채송화, 『도다리속국』 제13호, 고요아침, 2015.
 작은詩앗채송화, 『메롱』 제14호, 고요아침, 2015.
 작은詩앗채송화, 『감밥』 제15호, 고요아침, 2016.
 작은詩앗채송화, 『쑥대밭』 제16호, 고요아침, 2017.
 작은詩앗채송화, 『빈틈엔 꽃』 제17호, 고요아침, 2017.
 작은詩앗채송화, 『날아라 펭귄』 제18호, 고요아침, 2017.
 작은詩앗채송화, 『울걱』 제19호, 고요아침, 2018.

□ 단행본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魏書三十 辰韓傳

정병욱, 『중보판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3.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1.

□ 논문 및 기타 자료

- 김수미, 「『문무왕릉비』에 나타나는 북방과 출계 인신의 변화」, 『역사학연구』 제74집, 2019. 65-95면.
 김혜진, 「향가 창작 동인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신라인의 미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15, 2008, 265-301면.
 박노준, 「향가연구, 내일을 위한 제언 -유의할 점 몇 가지」, 『韓國詩歌研究』, 第45輯, 2018. 1-10면.
 박재민, 「향가 해독 100년의 연구사 및 전망 -향찰 체계의 인식과 古語의 발굴 정도를 중심으로」, 『韓國詩歌研究』 第45輯, 2018. 49-113면.
 박종덕, 「고려어 형성과정에서 신라어에 의한 고구려어 치환설 재고」, 『동아시아고대학』 제13집, 2006. 49-79면.
 신재홍, 「향가와 김영랑 시의 비교 고찰」, 『韓國詩歌研究』 第45輯, 2018. 243-267면.
 이종호, 「북방 기마민족의 가야신라로 동천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제70호. 2004. 113-139면.
 이종호, 「匈奴의 休屠王 태자 金日磾(金日)에 관한 研究」, 『백산학보』 제88호, 2010. 153-182면.
 이창민, 「향가 현대시화의 맥락과 방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46집, 2010. 81-103면.
 정연식, 「신라의 태조 미추왕과 은하수 성한」, 『한국고대사연구』 62, 2011. 207-251면.
 주경림, 「고대 향가 계승과 현대향가 재현의 현황과 과제」, 『문학/사학/철학』 제 57호, 2019. 129-164면.
 최귀목, 「동아시아 문학사에서의 향가의 위상」, 『국어교육』, 2002. 493-523면
 최범, 「신라어에서의 외래 요소」, 『한국전통문화』 15, 2019. 7-65면.
 황병익, 「역사와 문학 기반 향가 연구의 회고와 전망」, 『韓國詩歌研究』, 第45輯, 2018. 115-173면.

접수일 : 2019. 11. 23 총평일 : 2019. 12. 17 게재확정일 : 2019. 12. 29